

## 2024 년 3 월 박천식, 배선희 선교사의 소식

샬롬~!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 봄기운에 생명이 움틀 준비를 하는 3 월에 주님의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태국도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절이 변화하듯 영적인 계절의 변화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며 소식을 전합니다.

### 대추수의 시기(The Time of the Great Harvest)

지난 12 월과 1 월은 바쁘지만 즐겁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대추수(大秋收)의 시기였습니다. 12 월엔 크리스마스를 기회로 각 캠퍼스마다 전도집회를 하고, 또 함께 연합해서 크리스마스 전도채플을 하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이어 1 월엔 한국 단기선교팀과 함께 그야말로 대추수의 시기를 실감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1 월 3 일부터 31 일까지 한국 CCC 4 개 지구 (청주, 수원, 서울 북동, 서울 아가페)에서 239 명의 지체들이 와서 치앙마이 5 개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는 저희가 지금 새로운 추수의 시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번 단기선교팀이 캠퍼스에서 친구 사귀기를 하며 총 2,035 명을 만났고, 그 중 786 명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147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각 캠퍼스 마다 전도집회를 해서 482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 73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 감사

추수할 시기에 많은 일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해 보다 많은 수의 단기선교팀을 보내주셨습니다. 단기선교팀이 태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태국을 위해 기도하고, 현지에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추수할 일군을 보내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정말로 함께 동역할 일군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탄전도 채플



치앙마이대 코리안 나이트 전도집회



아가페 진료봉사

단기선교팀의 열정에 감사합니다. 언어, 음식, 날씨, 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아파도, 다쳐서 병원을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캠퍼스에 가는 모습에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태국간사팀에게도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매일 밝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저희도 힘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단기팀이 왔기에 준비해야 할 것이나 단기선교 기간 돌아봐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연속되는 사역에 저희 부부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1 월 내내 감기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연약한 저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시스터, 브라더 후드



2 월 17 일엔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시스터브라더후드를 했습니다. 단기선교 후 새신자들을 CCC 안으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적인 성의식, 그리고 남녀 간에 올바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간사들이 또 한층 성장하다



지난 12 월에 간사들과 꽤 오랜 기간 해온 사도행전 강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간사 자신들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29 장을 써내려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강의하며 성경을 읽는 시야를 넓히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간사들과 매일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나눔을 통해 간사들의 믿음의 진보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개인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로하신 아버님(90 세)께서 지난 설날 이후 식사를 못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어제 퇴원하셨는데 아직도 식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시고, 돌보시는 어머니도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스한 봄기운에 새싹이 나듯 동역자님의 삶에도 성령의 따스한 위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살롬~!

2024 년 3 월 첫날 태국 치앙마이에서

박천식, 배선희 선교사 올림